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선언

2023년 8월 4일은
새 건축사 미래를 여는 날

의무가입 시대가 명실상부 2023년 8월 4일 시작됐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

건축사 공지와 사명감 회복

건축사에게 주어진 공공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여

선조들의 유구한 건축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건축계 새로운 역사

이 모두를 통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겠습니다

2023년 8월 4일 새 의무가입 시대 개막

하나 된 건축사, 변화개혁으로 건축사가 사회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 걸음 더

석정훈 본협회장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선언문’ 회원 영상메시지로 밝혀 “건축사 본연의 직능·역할 명확히 정의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공고히 확립해야”

의무가입 시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문도 내놔

대한건축사협회가 8월 4일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3일 개정·공포, 8월 4일 시행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1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이날 전 회원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8월 4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건축사 시대 개막을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일 완료됐다. 의무가입 시대는 명실상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 의무가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

시금 확인시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가 공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 선조들의 유구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K-건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건축사 본연의 직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공고히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문도 내놔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에 게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건축사도, 협회도, 건축계도 모두 변해야만 한다. 변해야만 개혁할 수 있고 개혁해야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회원 권리 회복부터 시작해 의무가입에 걸맞은 협회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원 권리 회복부터 시작

의무가입에 걸맞은

협회 시스템 재정비

“모두 하나 되어

건축사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자”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건축사 민간 업무대가 건축사법 개정 ▲K-건축 구축의 초석 마련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 구축 ▲건축사업무 수입 신고제 도입 ▲설계도서검토



지난해 9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리강령 선포식. 건축사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기념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윤리강령 선포식’이 열렸다.

제 부활 ▲신고건축물의 감리제도 도입 ▲회비제도 개선 ▲건축사연금제도 도입 ▲회원업무 최적화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측면에서의 건축사 업무 강화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석정훈 회장은 새로운 의무가입 시대를 나아가기 위한 회원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모든 변화와 개혁은 충돌과 갈등,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이뤄지는 것처럼, 의무가입 법제

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의무가입이 시행된 만큼 건축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정훈 회장은 “이제 다 함께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건너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건축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 국회·건축계 인사, 신입 회원 축하메시지

“의무가입이 건축사의 발전과 성장동력 역할 할 것”, “한국 건축문화 발전 토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

한건축사협회가 시대적 미션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새로운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대

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국회·건축계 인사·신입 회원들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의무가입이 완성되기까지

협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의무가입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가 방향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의무가입을 맞는 이들 인사들의 축하 및 당부 메시지를 지면에 담았다.

건축계



“의무가입 계기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제고와 품질확보에 앞장 서길”

권영걸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이는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모두가 하나 되어 맺은 결실입니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문화의 토대를 이루고, 나아가 안전한 국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축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품질 확보에 앞장서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대한건축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건축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도시와 사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대 개막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건축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며, 혁신적인 건축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와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건축 실천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건축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사 상생과 발전 더불어 같이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 의무가입이 20여 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세간의 격정도 있지만,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 잘 알기에 앞으로 잘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건축사와 국민에게 더 나은 건축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건축계의 상생과 발전도 더불어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의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한국여성건축가협회도 최선을 다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미래에 더 큰 가치 선사할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하여 건축 분야 발전과 전문성 높이에 더욱 힘쓸 것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2023년 8월 4일 시행되는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장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가입은 건축사들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겠지만, 이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건축 전문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기술이 활발히 교류되면서 건축문화와 산업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보다 나은 품질의 건축물들이 창조될 것이며 건축사는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이며,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건축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학문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건축 분야에서 우수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축사 의무가입과 함께 건축 전반이 합심하여 건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협회를 꿈꾸는가?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

그토록 염원하던 의무가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의무가입은 건축사의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더불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린 건축계의 황폐화된 현실을 협심하여 극복하자는 이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하면서 엄청난 과제를 앞둔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협회’가 될 것인가? 좀 더 세심하게 건축사의 건축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신진, 여성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회원을 위한, 진정한 회원의 협회’를 기대합니다.

국회



김철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 건축문화 발전 토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의무가입 건축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축은 우리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담아야 하는 만큼 건축사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협회 가입 의무화는 그동안 일부 건축사에 의해 이뤄진 불공정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제재하고,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의무가입의 취지에 맞는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가 시대적미션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해가기를”

‘의무가입제’의 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도입한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님들의 여러 관심사에 더욱 밀착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재난, 안전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숙제에 대해서도 건축사님들만의 독자적인 탐구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일에 대해 갈수록 의구심이 커지는 시대에 대일수록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님들의 시대적 미션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무가입이 건축사의 발전과 성장동력 역할 할 것”

존경하는 건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가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국회의원은입니다. 모든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축사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올해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법제화 과정에 이견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건축사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만큼 건축사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 사회적 역할과 공공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축사의 업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건축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이 건축사의 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의무가입에 따른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 더욱 막중해져”

국회의원 김학용입니다.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월 4일로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축의 공공성과 국민 안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무가입 시대가 열린 만큼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무와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건축사 대표 단체인 만큼 건축 관련 현안 해결에 앞장 서주시고,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여러 단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큼니다. 모든 건축사님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공지와 자부심으로 건축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



협회 가입 의무화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전문인으로 도약 기대

김만성 대한건축사협회 제11대 명예회장

23년 만에 다시 맞은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에 건축사는 우리 건축문화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문화적 사명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혁신을 앞세워 화합의 장을 열고, 건축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스스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참여해 사회에 봉사하는 건축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전문인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사 공공성 되찾아 건물 안전·품질 높여야

이영희 대한건축사협회 제19대 명예회장

건축은 사유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재 역할을 합니다. 국민 삶의 질 측면이 아닌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 등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사의 공공성 회복의 노력을 시작해 젊은 후배들이 건축사로서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최선의 혁신 이루도록 회원 모두의 참여와 신뢰가 중요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제22대 명예회장

최근 LH 사태는 건축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사들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앞세워 윤리를 가다듬고 국가와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인이자 전문가로 새롭게 도약해야만 합니다. 건축사 스스로가 최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참여와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사업계 한목소리로 산적한 과제 추진해 실현되길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제23대 명예회장

의무가입으로 각기 달랐던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가입에 반대 의견을 가진 회원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운영에 반영해 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계 인식 변화와 건축사 위상 높일 수 있길

우남용 대한건축사협회 제24대 명예회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 법제화 시대를 맞았습니다. 건축계 유일한 법정단체로 거듭난 가운데, 이 모두는 전 회원이 하나로 힘을 합한 결과입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간 위축된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안전 등 선진화된 건축정책 정부에 제안, 실현할 수 있길

이철호 대한건축사협회 제26대 명예회장

의무가입 단계로 거듭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통합 건축사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K-건축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축계 현안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 발전,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선진화된 건축정책을 정부에 제안,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길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제27대 명예회장

건축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임에도 부당하게 겪는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건축계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건축사가 하나 되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높은 품질의 건축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K-건축 역사 만들어나가길

최정집 대한건축사협회 제28대 명예회장

대한건축사협회는 본래 건축사가 의무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2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의무가입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은 건축사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건축계의 승리입니다. 그만큼 건축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대적 자산인 건축이 국가적 사회적 책임 하에 세계적으로 발전하여 K-Architecture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울 때 도약의 기틀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 협력과 소통의 전환점 만들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명예회장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는 보다 높은 이상과 숭고한 비전을 온전히 실현해야 합니다.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주거 안정 및 건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공적 영역에서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건축계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계 협력과 소통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건축사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하는 기반 될 것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명예회장

의무가입은 건축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건축사 윤리 확립, 그에 따른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현안 해결을 도모하며, 건축사의 공공 기여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과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계 새로운 역사 써나가길

이명복 대한건축사협회 전 감사

협회 숙원사업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실현돼 마침내 본격적인 의무가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의무가입은 대한건축사협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건축계 모두가 하나 되어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건축계 문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해 건축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건축계 의견 모아 한목소리 내고,
의무가입 정착 계기로 건축의 사회적 역할 제고·강조해나가길”

신입 회원 _ 시·도건축사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민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운)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뉴스로 보도 될 때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비용에 비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사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총괄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협력분야의 안전문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사의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는 협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임진영 건축사(에스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후 가입한 건축사협회! 건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협회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더 나은 건축사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고생만 하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노무현)"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김기화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해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협회 가입 전에는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보니 혼자 해야 했던 부분들을 협회의 공지나 안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니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가입자가 한 명도 없도록 모두 가입하길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원승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나우원)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더불어 건축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건축사 간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들이 협회 안에서 단합하고, 서로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나누며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위성태 건축사(신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합격 후 3년이 되어 가는 올해 2월에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잘 갖추어져 있어 좋았지만, 50대에 홀로 개업을 하다 보니 마케팅·인적관리 등에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개업할 때 좋은 파트너로서 협회가 같이 해주길 희망합니다. 선·후배 건축사님들이 좋은 이미지를 담아 놓으셔서 건축주(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고 좋았습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이수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이봄)
협회 회원이 되어 많은 건축사들과 함께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협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축사가 되고자 합니다. 한편 의무가입으로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길 바라고, 민간부문 설계 대가기준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건축사로서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 진중히 고민하고, 여러 방면으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권서영 건축사(수평 건축사사무소)
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설계비 덩핑(적절한 설계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계 공모 로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사 업역에 대한 홍보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의료, 공학, 인문 예술 등 다른 전문 분야와 기꺼이 협업 할 수 있는 문화도 정착되길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이양재 건축사(엘리펀트 건축사사무소)
최근 들어 건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업계 종사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련의 L나아파트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 등에서 보듯이, 건축계 전반에 걸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력에 맞게 건축 분야도 그간의 수동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 분야 또한 K-건축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최성경 건축사(무화 건축사사무소)
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연고 없는 도시에 정착했지만, 늘 지역 내 선배 건축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사 개인의 경험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지역을 넘어 폭넓은 건축적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신병민 건축사(주.무주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가 앞으로 신진 건축사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리라 기대합니다. 신진 건축사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현명하게 이겨나가도록 협회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 개개인의 각자 도생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조정화 건축사(담은 건축사사무소)
협회 의무가입이 의무로 가입하는 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 간의 소통과 단합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또 설계 업무대가에 대한 적정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권익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가 전제된다면, 감리자와 시공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입니다. 협회의 관련 정책 추진들을 기대합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윤해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미당)
많은 찬반 논의 속에서 협회 의무가입의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되었고, 사무소를 개업한 건축사들은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협회에서는 건축사들의 우려를 잘 수렴하고, 각 건축사들의 발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후속과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단일협회를 이룬 만큼 "협회는 뭐하는 곳이야?" 라는 말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건축사협회 건축사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주길 당부하며,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류나라 건축사(가까운 건축사사무소)
가입 후 여러 행사와 동호회를 통해 많은 선배 건축사님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또 힘이 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업시기가 비슷한 동료 건축사님들과의 인연으로 서로 질문해 가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개업 후에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한민자 건축사(한가림 건축사사무소)
사무소 개설 8개월 차라 협회 의무가입 이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입이후의 다른 점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정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건축사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협회에서 주도하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홍보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최수미 건축사(이음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건축사들이 함께 다변하는 사회 현상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비 오기 전 우산을 준비한 듯 든든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협회의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라고, 앞으로 건축사들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송호승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공이일)
건축은 삶의 공간을 구성하며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건축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민간 수준의 적정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설계수준의 향상과 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필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비온드)
건축을 완성하는 건 건물과 문화가 합쳐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건축을 규정할 때 문화적 가치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건축사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생겼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물이 아닌 작금 시대에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법제화 과정 이견 있었지만,
반발 의견도 소통하고, 업계 한목소리로
산적한 과제 해결, K-건축 위상 높여야”**

사 설

의무가입으로 함께하는 대한건축사협회

8월 4일 1년간의 경과조치를 마치고 건축사 의무가입이 시행되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의무가입이 추진되었던 이유는,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제들의 개선이 모든 건축단체의 하나 된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진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건축사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큰 시각에서 바라볼 때 건축사의 권익과 책임에 대한 법과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확실하다면, 통합과 화합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모든 회원은 건축사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건축사라고 하면 전문가로서 대우받지만, 우리의 상황과 큰 차이를 가진다. 건축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율적으로 가입하던 것에서 의무가입으로 바뀐 것은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국가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다. 건축사 여러 명이 모이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



쁘다. 직접 그러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개선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추진 중인 내용도 많지만,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고 대응해 주는 것을 회원들은 원하고 있다. 해외 건축사협회의 경우 회원을 대신하

여 법적 분쟁에 대응해 주는 등 회원 개개인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의무가입이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도 점차 회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대부분의 건축사가 의무가입에 동참했지만 반감을 가진 건축사 역시 있다. 대부분 이러

한 건축사는 협회라는 울타리 없이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역량을 가졌거나, 협회의 울타리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서다. 충분한 만큼 역량을 가진 건축사 입장에서는 울타리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더욱 튼튼한 울타리로서의 협회가 지금 당면한 현실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협회는 그저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얻어내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회원도 있다. 그런 회원에게는 협회가 2만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기 때문에 방향타를 돌려도 바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서서히 바뀔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의무가입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의무가입은 다른 것들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업무환경이 나아지고 건축사의 위상이 세워지며 우리의 건축과 도시가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는다.



류재경의 건축시평

의무가입 통합건축사 단체 '대한건축사협회'의 거듭나기

과거 임의가입이었던 전문가단체들이 최근 다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그러하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8월 4일을 기해 본격적인 의무가입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20년간 임의가입제 하에서 전문직 위상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퇴보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높다. 건축사업계는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변화와 개혁의 계기를 맞은 바 협회를 통해 흩어져있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산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걸음 다가야 한다.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건축사들이 공통된 윤리와 규범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더 좋은 건축물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건축사들의 처우와 위상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건축사 업무환경이다. 현재 '건축사보수 및 업무기준' 폐지로 민간에서는 대가기준 자체가 없어 민원이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적정 업무대가를 받고 수주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살 깎기 저가수주와 과당 경

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협회가 의무가입단체로 거듭난 시점에서 보다 선진화되어 보편타당한 협회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윤리의식 등 공적 역할 강화와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 됐다. 먼저 협회는 명실상부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국가 정책과 사회의 과제들에 대한 건축적 해법을 적극 제시해야 하겠다. 미국건축사협회가 국가 건축 관련 법이나 정책에 깊이 관여하면

서 업계 규제 완화와 건축전문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방위로 나서는 것처럼, 의무가입을 통한 새로운 단체 위상에 걸맞게 국가 건축 정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양도 협회의 주요 과제다. 그동안 협회는 의무가입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건축사 윤리

강화와 건축계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정관 개정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 윤리확립의 중심적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정회원 외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화에 의미를 두기보다 이제 '의무가입 10

은 건축물로 사회에 기여하자'는 직업의식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시장 민간부문의 경우 자율경쟁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전체 허가 건수 97%를 차지하는 1,000m² 이하 건축물의 설계대가가 30년 전 대가로

형성돼 있다. 그간 최저임금이 8배 오를 것에 반해 설계비는 그대로인 상황으로, 협회는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회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민간 건축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의 '건축사 사무소 규모별 매출 현황'에 의하면 전체 3%에 불과한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49%의 매출이 발행하고 있다. '매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설계시장 질서가 붕괴되어 신진건축사들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대다수 사무소가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 우수 인력이 이탈하는 등 사무소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등 건축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가 건축계의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업무대가 정상화와 건축안전 확보 등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건축사의 위상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한편, 협회 내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대회원 증가에 따른 대안 모색 등 회비제도 개선, 신수익원 개발, 출판사업, 회원 아카이브 라운지 조성 등 변화된 모습으로 건축사 통합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건축전문방송 송출과 함께 저작권보호센터의 운영 역시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의무가입 완성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 건축사들의 반발 의견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서로 간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 역시 갖춰야 한다. 이제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을 계기로,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협회가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의무가입 시대 맞아 새로운 단체 위상 걸맞게
건축계 의견 모아 한목소리 내고
통합에 더욱 박차 가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길

년·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 공공재인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며, 건축물이 생성되고 멸실되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역할을 하면서도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중

류재경
건축사·비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협회 “건축사 명예훼손 단호히 대응”...언론 정정보도 청구, 구조기술사회에 언론 통한 문제 본질 왜곡 발언 즉각 중단 요청

협회 “지금은 국민 불안 해소, 안전 문제 철저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
구조기술사회에 공문으로 언론 통한 건축사 명예훼손 발언 즉각 중단 요청
KBS에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 방송 관련 “편파적인 토론으로 사실 왜곡”
정정보도 요청 및 균형 잡힌 의견수렴 위해

“건축사 토론 참여해 함께 머리 맞대 방안 찾아야”

구조 분리발주 주장에 입장문 통해

① 건축에서 ‘구조’는 불가분의 관계,

건축사와 협력관계에서 ‘하청’이란 표현은 부적절

② 이미 구조기술사, ‘구조계산, 구조도면 작성업무’ 법으로 보장돼

③ 전국 구조기술사 1200여 명 불과...태부족 구조인력 대체 위해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해야

④ ‘저가경쟁’ LH 사태의 본질,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 정상화해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LH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을 범한 구조기술사회측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문을 발표, 구조분야 분리발주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구조기술사회에는 문제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협회는 8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으로 본 사태의 핵심적 요인을 제공한 구조기

술사 측이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플레이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무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입장문을 내어 구조기술사회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서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한 몸과도 같아 건축설계와 구조는 따로 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 설명했다. 특히 “법제도상 구조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책임분야가 늘고 있는 데 비해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부실 점검·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구조기술사는 1,204명에 그쳐 전체 건축사의 6.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가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하나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는 형편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돼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지난 8월 6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의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법에 의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협력관계에 있음

구분	지구명	입주	누락대상(개소)	누락원인	보강방법 및 비용(백만원)	공사기간**	
구분 (9) 후 야간단	파주운정 A34	완료	12/331	구조계산 누락 (계획 변경구간의 계산누락)	슬래브보완 (52)	8.10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입주중	13/336	도면표현 누락 (전단보강상세도에 누락)	슬래브보완 (160)	7.31(완료)	
	수서역세권 A3	분양 포함	입주중	5/345	도면표현 누락 (전단보강상세도에 누락)	기동신설 슬래브보완 (42)	6.27(완료)
	수원당수 A3	분양 포함	입주중	9/325	구조계산 누락 (계획 변경구간의 계산누락)	슬래브보완 (39)	5.31(완료)
	오산세곡 A6		예정	75/90	착공도서(상세도) 누락	기동신설 슬래브보완 (600)	8.30
	남양주별내 A25	분양 포함	완료	126/302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슬래브보완 (750)	9.30
	음성금석 A2	완료	101/123	다른층 도면으로 배근	슬래브보완 (600)	9.30	
	공주월송 A4	완료	조시중345	단순누락	미정	9.30	
	아산토정 2-A14	완료	조시중362	단순누락	미정	9.30	
공사 중 (6)	양주화천 A15	예정	154/154	구조계산 누락 (전구간 전단계산누락)	기동신설 슬래브보완 (809)	8.10	
	광주선영 A2	예정	42/112	구조계산 오류 (계산식 오류)	슬래브보완 (257)	8.20	
	양산시 A2	분양 포함	예정	7/650	단순누락	철근콘크리트 상부보완 (25)	8.10
	양산시 A8	예정	72/241	구조계산 오류 (보강근 적용구간 오류)	철근콘크리트 상부보완 (254)	8.20	
	파주운정 B A23	분양	예정	6/304	구조계산 누락 (계획 변경구간의 계산누락)	철근콘크리트 상부보완 (20)	8.10
	인천가정 A1	예정	37/109	구조계산 오류 (전단보강 철근량 부족)	기동신설 (100)	8.20	

* 철근누락개수 / 무량판 전체 기동개수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누락원인

에도 균형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영방송에서 건축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독점하며 구조는 건축의 하청이다’, ‘구조대가가 건축설계 대가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구조기술사의 주장만 다루어져서다. 협회는 이날 토론에 참가한 건축구조기술사회 측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 자료를 첨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향후 건축물 안전사고 관련 보도 또는 토론 때 공정한 토론 및 균형잡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건축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언론을 통해 건축사 폄하 발언을 지속하는 구조기술사회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지만, 건축사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힘펠

대한민국 집의 가치를 높인다

Hueven S+
스탠드형 환기시스템

Huezentte Palette
욕실 복합 환기장치

ZEROC P
프리미엄 욕실 환기장치

Hueven EBN
천장매립형 환기시스템

Hueven W
벽부형 환기시스템

환기, 선택이 아닌 필수

욕실 복합 환기장치

Huezentte 2

Huezentte 3

HIMPEL 본사 경기도 화성시 안성남로 5 TEL. 1899-0991 FAX. 031-424-0993 쇼핑몰 www.himpellmall.com

건축사 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시상식 열려...건축사회관 1층, 의무가입 본격 개막과 함께 회원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

심사위 “어떤 공모전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수상작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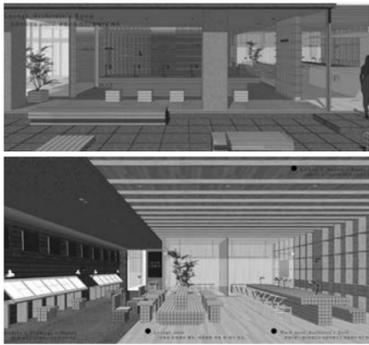
협회장상 황정은 건축사 ‘나의 아틀리에’...“구현 가능성 높고 협회 특징 살린 작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시상식이 8월 7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협회장상을 수상한 황정은 건축사(제이이건축사사무소)



협회장상 ‘나의 아틀리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시상식이 8월 7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공모전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공모전을 처음 준비할 때의 걱정이 무색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어떤 공모전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의 건축사협회를 방문해 보면 회관이 오피스가 아니라 건축사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협회도 천천히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번 공모

전이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심사위원회 이상대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이상대 위원장은 “여덟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숙고 끝에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이번 공모전은 의무가입 시대를 접은 건축사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장상과 가장 선정 작의 디자인적 특징을 소개했다. 협회장 상을 수상한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틀리에’에 대해 “건축사의 정체성을 공간에 담아내는 건 최종 세 작품이 유사하지만 구현 가능성이 높고 협회의 특징을 잘 잡아낸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장 상을 수상한 황정은 건축사는 “사무소를 개소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역량이 짧은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건축사회관 1층에 건축사 전용 아카이브 라운지는 설치해 건축사의 휴게 공간과 회의, 간이작업 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해 회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회관을 보다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다.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3년 이내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독창적인 작품이 많았다.

공모전은 지난 6월 참가신청과 최



가작을 수상한 (왼쪽부터)신병민 건축사(주.무주 건축사사무소), 석정훈 본협회장, 정지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양양)



특별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최순근 건축사(주.에이더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여성권 건축사(모아 건축사사무소), 석정훈 본협회장, 양형모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텍트)



입선을 수상한 (왼쪽부터) 이경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팀와이), 홍성준 건축사(해준 건축사사무소), 김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구.월), 석정훈 본협회장, 이재현 건축사(모루 건축사사무소), 오선영 건축사(주.오아키텍 건축사사무소)

종 제안서 제출이 이뤄졌다.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심사위원회의 총 네 차례

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틀리에’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조아라 기자

FOCUS 객관적·합리적인 ‘건축 심의 시스템’ 구축 절실

국내 심의제도 개선 위해 통합심의·심의위원 역량 ‘중요’

심의위원 주관적 의견으로 설계의도 훼손,

사업 장기화로 피해 눈덩이

“유사인증제도 통합하고,

합리적이고 설계자와 소통하는 심의문화 만들어야”

▶ 허가 절차별 심의·인증제도

허가절차	관련 심의·인증제도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사전검토),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신고, 굴토심의, 공원자문, 교통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항개발기술심의
허가신청	교육환경 영향평가(60일 전), 경관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심의
건축허가	사전재난영향검토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소방기술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저영향 개발사전협의(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 에너지 절약계획서, 군사시설 특별 건설기술심의
착공신고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심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홈네트워크인증, 녹색건축인증(예비인증)
착공	설계의안전성검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좋은 빛 심의, 옥외광고심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본인증)
사용승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지능형 건축물 인증, 관광속박업 등록심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건축계에서 건축 관련 심의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없지 않을까. 그만큼 건축 심의는 해묵은 논쟁거리이자, 개선 요구가 반복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기초실장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기사를 접한

한 건축사의 넋두리이다. 당시 하동수 기초실장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의한 건축심의 간소화 의견에 대해 “심의 등 건축행정이 상식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국토부 내 심의 기능을 통합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건축심의 양상에 대해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져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으로 인해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나 건축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또는 장기화되는 작금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건축 심의로 사업지연, 사업 백지화가 초래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축사사무소도 대규모 손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로 이어져 건축 심의 문제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건축사는 “대한건축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외에 건축 관련 심의는 정부 8개 부처에서 17개 종류의 심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인증제도이고, 심의기간과 심의 검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며 “이들 몇가지 부

분이라도 개선된다면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반영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고, 객관적 심의를 위한 기반도 구축될 수 있다. 결국 설계자들과 소통하는 심의문화가 정착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착공 전까지 약 36건의 심의 또는 인증을 받고 있으며, 본인증을 포함하면 더 많은 심의와 인증을 받는다. 동일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바로 건축 심의 과정 때문이다.

건축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지만, 실제로 의결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결 사항을 반영, 다시 계획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일한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뿐인데, 소송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심의위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B 건축사는 “역량 확보가 이뤄

지지 않은 위원이 경관심에서 건축물 내부를 언급하거나, 도면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디자인 지적을 해, 건축심을 받는 이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는 일도 다수 발생한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반드시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며, 역량을 가진 위원을 엄선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가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건축연구본부장은 심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황 본부장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 관련 심의도 건축심을 제정하거나 기존 심의 기준을 개정할 때 관련 부처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 관련 심의도 주택법이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서 규정한 통합심의제도를 명문화해 중복 심의의 의미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김선동 건축사

“건축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설계부터 완공까지 긴 호흡이 필요한 건축에 어울리는 텍스트 꾸준히 이어온 글쓰기 습관 바탕으로 건축소설 출간해

유튜브, 숏츠, 릴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주류인 상황에서 건축 과정과 건축사의 업무를 글로 소개하는 건축사가 있다. 집짓기 안내서와 같은 실용서부터 에세이, 소설까지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작업 중인 김선동 건축사(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글 쓰는 건축사’로 자신만의 건축 언어와 콘텐츠를 단단하게 구축해나가고 있는 김선동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요즘 콘텐츠 소비 방식이 아무래도 짧은 동영상 위주이죠. 세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콘텐츠 생산자로서 저는 영상보다 텍스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건축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야를 짧은 영상으로는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메모, 드로잉, 에세이 등 텍스트라는 형식 안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익숙한 방식으로 기록을 쌓아가다 보니 글이 쌓여 책이 되었네요.”

김선동 건축사는 글과 건축에 대해 이렇게 운을 떼었다. 건축물 리뷰, 서평, 스케치, 포트폴리오 등을 블로그에 업로드하며 건축과 관련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열린 건축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담은 ‘오픈 스튜디오’라는 사무소 명처럼 콘텐츠의 면면들도 건축 설계과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스토리텔링이라는 형식을 통해 설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쓴 두 권의 건축 소설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김선동 건축사는 건축소설 ‘COMPETITION’과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를 자비 출판했다. 에세이나 드로잉, 건축 비평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는 건축사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만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스토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덜한 것 같아요. 책을 내는 건



김선동 건축사(오픈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건축 지식을 축적하는 동시에 저러는 건축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만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도 있고 스스로도 환기가 필요해 평소와 다른 형식의 소설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김선동 건축사의 첫 번째 소설 ‘COMPETITION’은 대형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에서 겪었던 경험과 상상을 보태어 쓰였다. 국립 현대미술관 신축 설계공모에 도전하는 젊은 건축사들이 주인공으로, 설계공모와 건축 과정, 건축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두 번째 소설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는 집을 짓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다뤘다.

“이 책은 주인공인 설민영 건축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개소한 뒤 건축주를 만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집을 짓는 과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름 로맨스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건축 거장의 주택 작품과 저의 코멘트가 더해져 읽는 재미를 살렸습니다. 집 짓기라는 과정을 이야기로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이어온 글쓰기 습관을 다룬 저서도 있다. ‘건축가의 습관(예술과 실용사이)’은 김선동 건축사가 건축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힌 습관들을 담았다. 스케치, 독서, 글쓰기 등 창작을 위해 자양분을 얻는 방법부터 사무소 운영 철학과 건축관까지 사무소 운영에 있어 실용적인 정보도 담고 있다. ‘글 쓰는 건축사’라는 수식어답게 그는 1년에 한 권씩 출간할 계획을 밝혔다. 단순함 속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김선동 건축사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건 한 번에 이해되는 글을 쓰고 싶어서였어요. 건축이라는 산



업,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단순하지만 단단한 글로 표현하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물론 건축 활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저의 콘텐츠니까요. 사무소 개설 이후에 첫 작품인 교회 건물이 6월에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진행했던 다세대 주택도 공사 중에 있고요. 완성작을 꾸준히 만들어 가면서 저만의 건축 언어를 구축해 가려 합니다.”

조아라 기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기자회견...개막작엔 뉴욕 첼시호텔 건축물 지키려는 예술가 노력 그린 ‘드리밍 월스’



8월 9일 건축사회관에서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좌로부터 김다혜 프로그래머, 이혜빈 홍보대사, 김창길 집행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9일 건축사회관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5년을 지나온 영화제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성장하려는 영화제의 의지가 표현됐고, 또 “건축의 전통과 기술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는 이번 영화제의 취지도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김창길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다혜 프로그래머 등 관계자와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혜빈 배우 겸

가수가 함께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사의 작품인 건축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체이자 문화이다”며 “그동안 협회는 건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자처해왔는데,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그 시작이었다. 올해는 15주년을 맞아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제에 국민들을 초대했다.

실제 이번 영화제에서는 18개국 3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에는 ‘드리밍 월스(Dreaming Walls: Inside the Chelsea Hotel)’가 선정됐다. 작품은 패티 스미스, 밥 딜런, 마

돈나 등 유명 예술가들이 살았던 뉴욕 첼시 호텔의 마지막 순간과 건축물을 지키려 저항한 예술가들의 모습을 담았다.

영화제 프로그램은 개막작을 비롯,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프리츠커

한독일문화원과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대사관·문화원 상영,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진행되는 야외상영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모든 부대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극 ‘임대아파트’, 뮤지컬 ‘해시태그’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아이돌 모모랜드 리더 출신 배우 겸 가수 이혜빈이 건축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혜빈 홍보대사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서 세계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를 맡게 된 만큼, 건축영화제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상영되는 18개국 34편의 작품들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화여자대학교 ECC 내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상영은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채널에서 9월 10일 저녁부터 17일까지 8일간 무료로 진행된다.

박관희 기자

9월 6일 개막,
18개국 34편 출품...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서 상영
이혜빈 배우 겸 가수
홍보대사로 위촉

2009-2023’, ‘어반스케이프’, ‘비온드 - 춤추는 건축’, ‘스페셜 섹션 - 한옥, 새로운 물결’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브릭하우스, 은평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한옥투어 및 한옥영화 상영, 주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장윤희 건축사(경기도건축사회)

장윤희 건축사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는 건축사 위상과 신뢰 제고하는 첩경”



장윤희 건축사(유니즈 건축사사무소)

협회 의무가입 시대... “협회는 회원의 어려움 해결하는 솔루션 확보하고, 회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본 코너를 통해 아홉 번째 신입회원으로 주목한 이는 경기도건축사회의 장윤희 건축사이다. 그녀는 “의무가입 시대가 도래한 만큼 협회는 신입회원들의 자립을 위한 안내자 겸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선보여야 한다”면서, 일례로 “법률 지원,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계, 대가기준 일원화 등의 시스템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건축사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사무소를 개설해 ‘모두를 위한 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녀의 업계 입문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

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다년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언제가 나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여겼는데,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어느새 건축사 자격을 획득했고, 재작년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일 때는 몰랐지만 개설 후가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이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함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무실 가구를 배치하고, 회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들이 설레는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유니즈 건축사사무소가 있기까지 성장

통이 있었지만, 어렵고 즐거웠던 과정 모두 돌이켜보면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가입 완성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면서 늘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 사용자가 만족하는 건축, 전문가들과 일반인이 봐도 가치 있는 건축 등, 이처럼 좋은 건축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장소성에 따라 좋은 건축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건축주의 니즈에 맞는 건축을 위해 소통과 협업을 중시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용자에게 즐거움·공간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8월 4일을 기점으로 의무가입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부딪칠 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아가 어렵습니다. 협회가 법률문제 등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느끼는 불편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추진하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업무대가 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대가 산정을 위해 건축주와 협의가 이뤄질 때, 터무니없는 대가를 제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덕암초 체육관 증축 프로젝트



셀라리움(SELAHRUM) 카페 & 제조업소 프로젝트

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은 대가기준이 확립돼 이런 고민 없이 건축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건축사 업무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높은 건축사 업무와 국민들 인식 사이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뤄지고, 나아가 공인으로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주로 학교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사용자 참여설계, 고교학점제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발전하는 학교공간을 만드는 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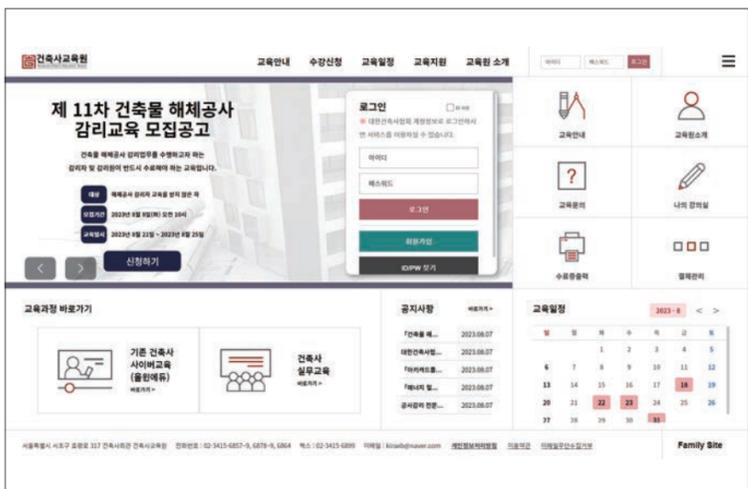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간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좀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사고가 유연해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디자인하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작은 인테리어 프로젝트부터,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감각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후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소규모라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상생해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관희 기자

의무가입 맞아 회원 편의 제고 건축사교육원 누리집 대대적 개편...통합교육 서비스·ONE ID 구현



건축사교육원 누리집

- 의무가입 시행 및 누리집 리뉴얼에 맞춰
- 정회원 대상
- 윤리교육(사이버)
- 5과목 무료개설,
- 전문교육(사이버) 2과목
- 50% 할인 혜택 진행

건축사교육원이 직관적인 디자인, 손쉬운 접근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누리집을 8월 7일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새롭게 리뉴얼된 건축사교육원 누리집은 대한건축협회의 ‘ONE ID’ 구현을 통해 기존의 누리집 별 로그인과 상이한 아이디 사용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간 개인정보 보관과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건축사교육원 관계자는 “건축사실무교육 등의 사이버교육은 PC뿐만 아니라, 반응형 웹을 적용한 휴대전

화,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며 “집합교육에서는 휴대전화에서 QR코드 등을 이용해 출석체크, 시험평가, 강의평가를 원스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사교육원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행과 건축사교육원 누리집 리뉴얼에 맞추어 정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사이버) 5과목 무료개설, 전문교육(사이버) 2과목 50% 할인 혜택을 진행한다.

조아라 기자

숙련인력 부족에 산업 기반 붕괴 우려...산업 역량 키울 종합대책 필요

건축시평

김강수 건축사
(주)연우 건축사무소



온화함을 넘어서 열대화 날씨가 수 상하다 했더니 건축업계도 더위를 먹 었는지 순살 xx, 통뼈 xx, 흐르지오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 참 말도 잘 지어낸다. 재미있다고보다 웃고픈 일 이다. 국토부의 전수조사, LH에 대통 령실까지 나서 이런 카르텔이다 뭐다 하고, 여기에 우리 협회와 구조기술 사회 사이 분위기가 격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30년이 지나갔다. 건축사로서 처음 도면에 날인하던 때가 생각났다. 설 레기도 했지만 겁도 나던 때, 내 위 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것 없었고, 힘들어도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왔던 것 같다. 작은 집을 설 계해 주고 만 원짜리 꼬깃꼬깃한 팁 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 적 도 있었다. 우연하게 대기업과 연계 되어 설계를 맡게 되었을 때도 검토 하고 또 검토하여 이상 없다, 라고 했지만 현장에는 꼭 몇 가지씩 문제 가 생기곤 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구조 체크에 도면 그리기, 수량 산출과 내역서 만들기 등을 해 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

웠다. 그런 나는 행운이었으나 한편 으론 이런 건축기술들을 모두 섭렵하 여 다방면의 기술자가 되는 것은 극 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선배 건축사들은 거의 모두가 만능 기술자였다. 학력이 높아서,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현장에서 뒹굴고, 스스로 연필을 깎아가며 익 힌 기술들이다. 손발이 일머리를 알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절은 그대로 있질 않 는다. 내 아는 형 한 분도 그랬다. 그는 광고업자였다. 손재주가 뛰어나 인근 에서 알아주는 기술자였는데 컴퓨터 가 나오면서 모두가 동일해져 버렸 다고 한탄했다.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글자체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획일화, 동일화하여 남은 것은 아이디어뿐이라고 아예 짐을 싸서 자 카르타로 가 버렸고, 거기서 더욱 성 장할 기회를 찾았다고 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 수채화 화가로 데뷔했다고 작 품을 올려놓았다.

이렇듯 손에서 컴퓨터로 작업이 옮겨가는 동안 우리나라의 건축계, 건 축사 인력 양성은 어떻게 되었었나를 생각해 본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 건축공학과에서는 설계, 구조, 시공을 전문과목으로 편성하여 수강하게 했 고, 그러고도 5년 경력을 가져야 고 시를 치렀다. 기본을 거친 셈이다.

오구세대에서 연필세대로, 이젠 PC 세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기술

은 진보되었을 뿐, 기본은 그대로다. 바로 사람이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이다. 그런데 요즘의 건축교육은 건 축학과와 건축공학으로 나뉘고 커리큘럼도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면서 건축학

회로 내보낸다고 한다. 실로 완전 양 분화한 모습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닐까?

직원들은 뽑아 일을 해보면 엉뚱한 그림들이 나와 깜짝 놀라기도 한다. 문짜, 화장실 한 칸, 철근 배근도면, 전기설비 매치... 실무와 학과가 달 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마저 도 사람이 없다. 맨 아래·허리를 지 탕해 줄 사람이 없다.

기술은 시스템에만 있지 않다. 사 람과 사람의 머리와 손에 더 큰 비중 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사, 기 술사 누가 낙찰받고, 누구에게 도면 을 그리라 했고, 누구에게 구조계산 을 하게 한들 다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이다. 이만 명에 도달한 건축사와 기전 명도 안 되는 구조기술사의 기 형적 인력 구조를 보면 입찰제도 하 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다 인 듯하는 어떤 분의 인터뷰가 안타 깎다. 입찰 분리과 구조감리제도를 운운하며 닦하기 전에 우리가 운용하 는 사람들, 직원의 바탕이 튼실해야 함은 처음부터 당연한 사실 아닌가?

수주하여 검토하고 업무지시할 사 람은 적고, 실무자도 많지 않은 인원 이며 그나마 기본이 안된 숙련자만 있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빈약한 교육의 결과인 실무자의 노고마저 없 으면 사무소 자체가 운영도 될 수 없 을 뿐 아니라 기형적 시스템(하도에 재하도)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 누 락 15곳 아파트를 공개했다. 사진은 책서포 트가 설치된 LH 아파트 사진=뉴스1

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도면이 그려 지고, 계산되며, 보강해야 할 곳을 알 고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쳐다보고, 걱정하면 금번의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무량판 구조 만 욕을 먹고, 캔틸레버 이해를 거꾸 로 하는 현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처 럼 들린다.

좋은 건축사보, 구조기술자 양성하 는 구도의 건축교육은 지금의 교육제 도에선 힘든 것 같다. 설계교육에 구 조와 재료, 공법이 따로 아닐 것이 다. 건축공학 졸업자도 건축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자 수련을 받았다면... 포함지진 때 필로티 철 근에 의지해 지탱하고 있던 건물이 생 각한다. 그렇게라도 보강하여 건축 되었기에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피할 시간을 벌여준 것이다. 욕은 많이 먹었으되 그들이 건축인들이다.

국토부 8월 말까지 불법 하도급 집중 합동 단속...단속 결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계획

국토부·공공기관·인허가청 상시 단속 체계 구축 적발 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진행

국토교통부가 8월 말까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한다. 8월 1일부 터 진행된 단속은 국방부 등 43개 공 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된 가 운데,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약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 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 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 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 없 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관계 업체 273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하 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단속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8 월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 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다.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분석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 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 시 통보하는 불시·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 ◆ 건축사 업무 관련 윤리 및 부조리
- ◆ 건축사 자격 관련 부조리
- ◆ 협회 조직 관련 부조리
- ◆ 허가권자 및 발주관청 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인터넷 신고 접수)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

알림·참여 광장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대한건축사협회 법제관리팀(02-3415-6839, 02-3415-6860)

MY 부동산 뉴스 격주간의 엄선된 부동산뉴스를 콕 집어 전달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 완화...DTI 60%·RTI 1.0배 적용

8월부터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세입자보호조치 기재해야

▶ 보증 3사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HUG	HF	SGI
상품 유형	①임차인 가입 특례보증(7월 27일 출시) ②임대인 가입 특례보증(8월 말 출시) *임대인이 역전세반환대출로 규제완화 적용시,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만 이용 가능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없음	10억(*주공공법상 고가주택 제한 있음)	제한없음
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선순위저당권 및 선순위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3% 아파트 외 연 0.15%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LTV 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할증
보증료 납부	임대인 납부 원칙		
대출시 의무 사항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 ①반환보증 가입완료 ②임대인 보증료 지급 *의무사항 위반시 대출회수 등 대출 관련 제재 부과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 주인을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

적용한다. 개인의 경우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하며, 임대 사업자의 경우 RTI 1.25(비규 제), 1.5배(규제)의 적용 비율을 10 배로 낮췄다.

대출 금액의 경우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뒤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차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 지다.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을 한 경우 ▲해당 주택으로 집주 인이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 자금(전세보증금)을 확인한 경우다.

임차인을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 됐다. 오는 8월부터는 임대인의 전 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 무화된다. 또한 7월 27일부터 임대 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이 의무화된다.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 가 임대차 계약을 할 시, 한국공인 중개사협회의 한방부동산거래정보 망(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를 기재해야만 한다.

대출 약정의 경우 ▲후속 세입자 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 하는 경우 로 나뉜다. 세 경우 모두 전세금 반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이 금지되며,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 규 주택의 구입이 금지된다.

조아라 기자

인터뷰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지역건축사회 이연정 회장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는 토대입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지역건축사회, 전국 135개 지역건축사회 중 최초로 회관 신축

토지 매입·사업 계획·설계·감리·분양 등 전 과정에 회원 참여...소속감 고취해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지역건축사회가 전국 135개의 지역건축사회 중 최초로 회관을 신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6월 시흥시청 정문 앞인 시흥장현지구에 토지를 매입한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월 시흥지역건축사회관이 준공한 것이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이연정 회장은 “시흥지역건축사회가 30주년을 맞아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회관을 준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다져온 기반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운을 뗐다. 의무가입 시대, 시흥 지역 건축사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인 이연정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이연정 회장



회관사진

Q. 시흥지역건축사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회관 준공은 시흥지역건축사회의 회원들이 다져온 기반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선배 건축사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전임 집행부의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모든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덕분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관 건립이 구체화 된 것은 시흥시건축협동조합에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안정적인 자원 마련 등 토대를 잘 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뒤로는 복지와 수익 창출을 위한 조합 차원의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있었고, 첫 사업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시흥시청 정문 앞인 시흥장현지구에 토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내외적 어려움을 딛고 회관을 준공할 수 있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큼니다.

Q. 전국 지역건축사회 중 최초로 회관을 신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회관 신축은 시흥시건축협동조합이 시흥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안정적인 자원을 마련해 토대를 다져온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된 후에는 복지와 수익창출을 위해 조합 차원의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조합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사회관 사업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관은 시흥시건축협동조합이 최초로 시행하는 수익사업이자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회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할 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금의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는 시흥시건축협동조합에 축적된 자금과 경기도건축사협회에 일부 대출을 받았고, 또한 72명 회원들의 1구좌씩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는 신용 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도

아까지 않았고,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회원들에게 분양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현재 다수의 회원사는 물론 시흥시 도시균형개발 사업단도 입주하였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 바닥 면적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발코니도 실별로 균등하게 배정한 점도 분양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Q. 회관 건립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회관 건립을 위해 회원들이 시간과 경험을 아끼지 않고, 토지 매입부터 사업 계획, 설계, 감리, 분양 등등 모든 과정에 회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회관 설계 디자인도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6개의 설계안 중 장현영 건축사(지안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설계비는 공공건축 설계대가 기준에 맞춰 책정하였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모 당선안을 고집하기보다 사업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건물 입면을 조정했습니다. 감리자 선정은 추천으로 진행했는데 갖 입회한 신입회원인 도

미연 건축사(울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감리를 맡았습니다.

회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원들 간 관심과 애정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확실에만 매였다면, 불안한 기류만 짊어졌을 상황을 그동안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시흥시건축협동조합장님과 시흥지역건축사회 전임 회장님이 회관 사업에 큰 축을 담당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두 분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기에 감사 인사와 더불어 두 분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시흥시건축협동조합 운용일 이사장님은 건축사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뤄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조합이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회원분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이성원 전임 회장님도 이번 회관 건립을 복지사업의 마중물로 보셨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의 지향성이기도 한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보셨습니다. 회원의 수익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가 단체로 입지를 다지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요.

Q. 본격적으로 의무가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무가입의 본격 시행으로 새로이 가입한 건축사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도 가입 독려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중 협회의 수익창출과 이로 인한 회원들에게로의 복지 혜택, 그리고 단합된 조직과 깊은 소속감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흥건축사회관 준공으로 시흥 지역 내 지역건축사회의 입지를 굳건히 했고 동시에 회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회관과 같이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조합의 활성화로 수익과 배당금 등 금전적인 부분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감을 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아래 전국의 모든 건축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는 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조아라 기자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물막이판 설치사례>



장착 전



장착 후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

차장 진출입구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확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이력이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와 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관희 기자

주목! KIRA 건축추천자재업체

“불에 안타는 목재로 건축 목재시장 블루오션 개척할 것”

신영목재 김종환 대표이사 인터뷰

1994년 창사 이래 파렛트부터 포장박스, 인테리어용 편백나무 등 취급 불에 타지 않는 방염, 난연, 준불연 목재와 차세대 탄화목 데크재 국내생산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활발, 미래 건축산업 발전과 목재업 개척



신영목재 김종환 대표가 방염·난연·준불연목재에 대해 설명하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추천자재업체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아이템 개발을 통해 더욱더 가까이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설립된 신영목재는 30년 가까이 목재 파렛트(Pallet) 및 포장박스, 인테리어용 편백나무를 취급해 오다 2014년부터 건축자재분야의 영역을 넓혀 왔다. 특히 방염, 난연, 준불연 내화목재와 방부, 탄화목, 활엽수재 제품화 등 목재의 내화성을 높이면서, 목재의 장점인 천연향, 온·습도 조절 기능 등을 가진 제품을 무기로 목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을 잡아놓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노블우드’로서 방염, 난연, 준불연 목재를 통해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난연 목재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목조 주택의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신영목재 김종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었다.

Q. 신영목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영목재는 미래 건축산업과 생활건강 분야 그리고 파렛타이저 등을 통한 물류기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메인 아이템은 산업용 수출 포장, 불에 타지 않는 건축내장재용 특수목재, 그리고 인테리어용 루바재와 첨단 탄화 데크재가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건강유지의 한 축인 사계절 웰빙 제품으로서 피톤치드로 힐링하는 아이템인 ‘그린다움 웰빙스토리’가 있습니다.

Q. 신영목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 중 가장 인기있는 주력 제품과 경쟁 우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국적인 경쟁력(10위 이내)을 가진 각종 산업용 포장 파렛

트가 있습니다. 또한, 불을 잡아놓는 ‘노블우드’로서 방염, 난연, 준불연 목재를 1차 R&D 성공에 이어 업그레이드용 2차 R&D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화재 인명 피해, 재산 손실을 막아주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목재인 편백 인테리어와 첨단 미래형인 탄화 데크재(부패, 부식 ZERO), 그리고 사계절 웰빙스토리를 통해 힐링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 모두 타사 대비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문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제품이라 홍보효과가 적어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사신문을 통해 협회 회원분들께 제품 특장점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Q. 신영목재가 1994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목재업 개척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한편으로 보면 장수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업종이지만 시작을 하였으니 무엇인가 크든, 작든 업계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업계를 위해 특별히 신영목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청와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1차 회의에서 목재업계 특히 물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로컬 무역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직수출하는 제품의 포장, 파렛트



노블우드 루바 준불연 간이테스트. 오른쪽이 ‘노블우드’로서 방염, 난연, 준불연 목재이다.

가 목재뿐 아니라 플라스틱, 종이, 철재 등 전 분야에 2014년 6월부터 고시 규정 개정으로 적용되어 수출입 업계에 많은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불에 타지 않는, 즉 불의 비산을 잡아주는 준불연 목재를 타깃으로 시작한 도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로 꼭 목표를 달성한다는 일념 하에 강소기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헬스케어 제품으로서 품질 좋은 원적외선 편백 사계절 ‘그린다움 웰빙스토리’는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피부개선, 기타 항균 효과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KC 인증(원적외선, 음이온 공인 시험성적서 보유)을 받은 제품입니다. 외관상은 분명 사우나이지만 따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닌 몸과 마음을 원적외선과 피톤치드 향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편하게 해주는 미래형 헬스 제품입니다.

또한 신영목재는 20년간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활동, 노인회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성공의 요체라고 믿습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번 신규 개발된 아이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개발 의지에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가성비 이전에 아이템의 품질과 내구연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기업의 개발 의지를 북돋아 주는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영목재는 지난 30년 동안 목재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고 방염·난연·준불연 처리가 된 ‘노블우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유해가스 최소화로 대피시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선 처리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추천자재업체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아이템 개발을 통해 더욱더 가까이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장영호 기자

예정설계비 87억 원,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국제 설계공모...8월 말 본공고 예정

첫 목구조 시범사업으로 건립, 저탄소 친환경 건물...서울시 운영도서관 중 최대 규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 눈여겨 볼 점은 서울 시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친환경 목구조 건축물’로 건립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규모는 기존 서울도서관의 2.5배로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유도,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서울을 대표

하는 ‘혁신디자인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는 2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기본구상·콘셉트·디자인 등 제출물을 간소화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 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5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안과 실현방안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 심사에서는 국제도서관연맹 평가기준을 준용해 기술검토, 작품심사를 진행, 올해 12월 중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1등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우선협상권과 3,000만 원, 2등 7,000만 원, 3등 6,000만 원, 4등 5,000만 원, 5등

4,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제 설계공모 정보는 8월 8일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8월 말 본 공고를 통해 세부 공모지침과 일정 등이 추가 안내된다.

시는 서울시의 저탄소 친환경 비전을 반영해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목구조를 적용하는데, 따라서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조성된다.

한편,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1만6,899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만5,000제곱미터, 야외정원 1만제곱미터 규모, 예정설계비 87억 원을 포함해 약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박관희 기자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02)3416-6962~7 news@kira.or.kr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사위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23 신진건축사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과주 원과호에서 '2023 서울 신진건축사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신진 건축사 입장에서 협회 및 건축사 권익에 대해 고찰하고, 신진건축사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건축계에 신진건축사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신진건축사 23명과 신진건축사위원회,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UAUS 운영진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김재록 회장과 전영호·이선경 부회장, 본지 박정연 편집국장 등도 참석해 신진건축사들과 소통하고 격려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라디오 광고 송출

올여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광고를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사 및 서울시건축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를 제작, 송출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에서 총 279회에 걸쳐 송출되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아침 7시 59분 《김현정의 뉴스쇼(CBS Radio 표준FM 98.1MHz)》에서 들을 수 있다. 이밖에 신설동역오거리, 공덕역오거리,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시내 곳곳의 전자계시대에서도 서울시건축사회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사랑의 빵 나눔' 봉사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8월 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 기탁했다. 사랑의 빵 전달 사업은 양 기관이 체결한 MOU 협약의 일환으로, 제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빵을 만들고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부산건축사회 회원, 임원진, 위원 등 45여 명이 참여해 단팻빵, 카스텔라 1,000개를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빵은 부산진구청, 동래소방서, 장애인 참배음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총 4곳으로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이상립 건축사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빵 만들기를 하며 제가 오히려 힐링이 된 것

같다"는 참여 소감을 전했다.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은 "건축사회에서의 지원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적십자사에 250만 원 기탁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8월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적십자사에 성금 25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구호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23 하계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7월 18일 '2023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하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명예회장과 임원, 대의원, 각 위원회 위원장, 구역 회장, 취미부서장, 추대회원 및 관련 단체 임원 등 회원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시건축사회 상반기 추진사업, 하반기 주요행사 및 교육 일정, 최근 개정된 제도 및 법률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구시건축사회에서 추진 중인 중인 건축사업지원시스템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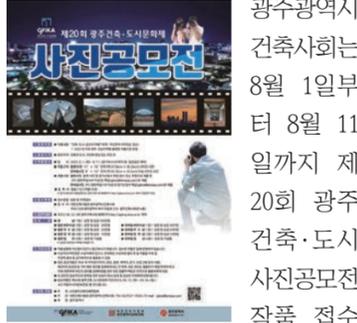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북성로 어린이건축학교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가 대구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7월 20~21일 양일간 어린이 건축학교를 개최했다. '북성로 어린이건축학교'는 대구시건축사회 대구 중구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진행하는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아이들이 만드는 전시모형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북성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기획돼 2022년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5~6학년 20명이 '집(미래의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다양한 형태의 집)'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재 활용품을 이용해 전시 모형을 제작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이 공부야 아닌 놀이와 체험의 개념으로 다가가 아이들

이 건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0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공모 진행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 20회 광주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작품을 접수했다. 올해 작품 공모주제는 건축·도시·공간의 여행(부제:자신만의 의미 있는 장소)으로 일반사진과 모바일사진으로 구분해 접수했다.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은 제20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기간(9.12.~9.24.)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세종건축문화제 '청소년 여름건축학교'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가 세종시 주최, 세종시건축사회 주관 2023 제6회 세종건축문화제의 청소년 여름건축학교를 개최했다. 청소년 여름건축학교는 중고등학생 40여 명, 대학생 30명, 추진위원 20명, 관계공무원 및 운영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1일 세종시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 여름건축학교는 세종 대통령직무실을 주제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모델링해 건축 모형을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조원들의 작품설명을 경청하며 건축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기도건축사회, 심상정 국회의원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 건의



경기도건축사회는 7월 13일 심상정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건축사 업무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개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이 담긴 건축 관련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의무가입 완성을 위해 부가적인

시행령이나 부칙 제정 등 후속 과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설계자문단 위촉식 가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지난 7월 20일 충남건축사회 3층 대회의실에서 설계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정광영 충남건축사회장은 충남지역 15개 지역건축사회 41명의 설계자문단위원을 위촉하며, "수시로 변하는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과 설계 및 건축허가 시 복잡한 행정절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주문한다"며 "또 설계자문단 운영을 통해 설계도서의 품질향상과 건축사의 자긍심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자문결과서를 정리해 설계비 현실화와 정상화를 위한 당위성·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북해도 해외테마 건축기행



충청남도건축사회는 '2023 해외테마 건축기행' 6차 기행지로 북해도를 선정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해외테마 건축기행을 진행했다. 충남건축사회 2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한 일정을 통해 북해도의 기타이치가라스마을, 오르골당, 쇼와와산, 사이로 전망대, 도야호수 유람선과 샷포로맥주박물관을 답사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수해 복구 성금 1,000만 원 기탁



전라북도건축사회는 8월 1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수재민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라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과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이태원 부회장, 조은석 총무이사,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나마 수재민의 슬픔을 덜어 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남문화재단과 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 MOU 체결



전라남도건축사회는 7월 6일 전남문화재단과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형민 전남건축사회장과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와 단체 관람 협조, 홍보물 지원, 관람 편의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형민 전남건축사회장은 "대규모 국제 행사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길 희망한다"면서 "소속 건축사와 직원들의 관람을 독려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지역건축사회, 고양·일산소방서와 건축물 화재예방 업무협약



고양지역건축사회는 지난 6월 29일 고양·일산소방서와 함께 고양특례시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물 화재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건축물 소방시설에 관한 컨설팅 및 소방·건축 관련 법령 상호 자문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및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건축물 화재 시 합동 감시조사 지원 ▲건축사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교육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저소득 가구 지원 성금 500만 원 기탁



익산지역건축사회는 8월 2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지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안영목 익산지역건축사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금을 모았으며, 나눔과 봉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march@donga.com



생성형 AI 시대, 문제 발견 능력이 가치 창출 역량된다



인간의 가치 창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문제 발견 (problem finding)’과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이 그것이다. 문제 해결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교육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고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잘 풀면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문제 발견과 관련해서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명문대를 나와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내던 사람에게 창의적으로 새롭게 문제를 고민해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으로 문제를 발견해낸 사람 덕분에 발전해왔다. 세상 사람들이 별 볼만 없이 피쳐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는 기존 방식의 휴대폰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를 개발, 세상을 바꾼 것처럼 혁신가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견의 천재들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역량만으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전문성을 쌓으면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딩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적어도 2~3년 간은 풀타임으로 몰입해서 학습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능숙하게 코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굳이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발견하는데 관심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조직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필자는 코딩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챗 GPT에 자연어로 코딩을 해달라고 부탁해봤다. “나는 코딩을 할 줄 몰라. 하지만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으니 코딩을 좀 해줘. 맨 윗줄에는 *** 이란 글자를 폰트 20 사이즈에 검정색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 줄에는 기사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줘. 이 코너는 모바일과 PC화면 크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크기를 조절 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줄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를 폰트 사이즈 9로 작게 표기해줘.” 놀라게도 불과 몇 초 만에 챗GPT는 능숙하게 코딩을 해줬다.

“가장 핫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나 파이썬이 아니라 모국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즉, 문제 해결은 생성형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생성형 AI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게 명령할 것인가, 즉 문제 발견 역량이 경쟁력의 요체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롭게 세상을 보고, 기존 서비스나 시스템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민감하게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생성형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 창출 역량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국적인 섬, 외도 보타니아

외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외도보타니아는 botani(식물)와 topia(낙원)의 합성어로 식물의 천국이라는 뜻으로 푸른 남해와 경관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해상 식물 공원이다.

거제도 본섬에서 4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강우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난대 및 열대성 식물이 자라기 좋다. 특히 외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해금강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려하다.

외도 보타니아의 탄생

외도는 거제의 60여 개의 무인도 중 하나로 한 부부가 꽃과 나무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척박하고 외로운 바위섬을 식물원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곳이다. 1970년대 외도는 전기, 전화, 수도시설도 되지 않았으며 배 정박 시설이 없어 기상이 좋지 않으면 10여 일씩 교통이 두절 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다가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사업을 하던 고 이창호(2003년 별세) 선생과 부인 최호숙 여사는 1969년 7월 이창호 선생이 낚시를 왔다가 풍랑을 만나 우연히 외도에 하룻밤 머물게 되고, 이를 인연으로 외딴섬 한 채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3년여에 걸쳐 섬 전체를 다 사들이게 되었다. 밀감농장, 돼지사육이 연이어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방풍림으로 심은 8,000주의 편백나무를 보며 식물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고 이창호 회장의 부인 최호숙 여사는 식물원에 관련된 자료와 수목 배치, 조경 구상을 맡았으며 정문, 화장실, 전망대, 관리사무소, 휴게소, 기념관은 건국대 건축학과 강병근 교수가 자연미를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1976년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고 1990년에는 건설부로부터 외도 문화시설을 지정받았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되었다. 1995년 4월 '외도해상농원'으로 문을 열

어 한해 100만 관광객이 찾는 외도는 주 섬인 동도와 나머지 작은 섬인 서도 그리고 더 작은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는 외도보타니아가 동도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64종의 자연 식물과 전 세계 1,000여 종의 희귀 아열대식물이 자라고 있다. 습한 공기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염분에 강한 해송, 사스레피나무, 후박나무, 자귀나무 등 잎이 작고 두꺼워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나무와 습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마삭줄, 아이비, 천리향, 팔손이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식물의 낙원

선인장 동산을 중심으로 바나나, 나팔꽃, 올리브나무처럼 희귀한 열대식물 때문에 외국의 어느 정원에 온 듯하다. 버킹검공전의 후정을 모티브로 설계, 외도보타니아를 대표하는 비너스 가든은 12개의 비너스상이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겨울연가’ 마지막 회를 찍은 ‘리하우스’는 비너스 가든 끝자락에 서서 바라보면 지중해 스타일로 보이지만 실내 공간은 안채와 사랑채 개념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 색과 향의 천국을 이루는 화훼단지, 대나무와 자연림이 우거진 터널길, 대죽이 끈끈이 뽀얀 대나무 숲과 구불구불한 동백나무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제2 사랑의 언덕 전망대는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제를 지내던 수령 300년 된 당산나무가 있는 곳으로 외도를 대표하는 비너스 가든과 사택 그리고 화훼단지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천국의 계단’은 원래 주민들이 밭을 일구던 자리에 밀감나무 3천 그루를 심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심은 편백 나무 8천 그루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아왜나무 외 여러 가지 정원수로 태피스트리처럼 조성되어 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양옆으로 밀감나무 대신 다양한 희귀식물이 진한 꽃향기를 품으며 마치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길이 110m인 방파제는 유람선의 접안과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하여 조성되었고, 그 끝에 외도 섬 모양을 형상화하여 설계한 등대가 자리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등대의 안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미로형식으로 설계되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욱더 느낄 수 있다.

출처 : 거제시청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외도길 17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비너스 가든 전경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지구 열대화’ 시대의 단열설계

건축과 삶

이세영 건축사
세성건축사사무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몇 해 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또는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작년 겨울에는 스위스 스키장들이 눈이 없어서 개장을 못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내심 단순한 기상 이변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 ‘우기’를 접하고, 또 역사상 최고 기온이었다는 6월과 7·8월 폭염을 경험하고 나니 기후변화가 정말 위험한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종말하고 ‘지구

열대화’ 시대의 개막을 몸소 체감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단열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단열설계기준은 2008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 적용하고 있고, 2012년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 이후에는 경미하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직간접 건축적 경험을 통해 단열적용이나, 강우에 대비한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며 패시브 인증주택, 또는 그 기준에 준한 설계를 하고 완성된 주택의 건축주들

이 열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이용량은 이전 주택보다 확연히 줄어들고, 외부의 더위와 추위에도 내부 온도의 적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런 듯 하다.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를 어떻게 적용할지, 창호 접합부 등 이질재의 접합에서 열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고, 함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창호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짧은 주기로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다니게 되면서 창호를 직접 겪은 바로는 확실히 로이유리가 단열 및 결로현상에 유리함을 알게 되었다. 이중창으로 1)외부 일반복층+내부 로이복층 2)외부 일반복층+내부 일반복층 3)외부 로이복층+내부 로이복층의 3가지 경우를 경험해

봤는데 2)번의 경우가 겨울철 남쪽창 외부 유리에도 결로가 생기는 등 가장 좋지 않았고 3)번 창호가 가장 좋았다.

단열설계기준이 제로에너지건물을 목표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맞춘 설계보다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기준의 2.5배 이상 시공시(개인 경험치임)에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

단열재가 두꺼워지면 외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시공기술 및 재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단열재 비용추가 외에 다른 비용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현재도 시공가능한 공법이 다양하게 있고, 기술개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물 계획 및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로 보는 세상

절망

- 김수영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공명이 공명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댄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시선 ‘거대한 뿌리’ 중에서/
민음사/ 1995년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파경이라고 부른다. 상황이 상황을 반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파국이라고 부른다. 졸렬과 수치가 자신을 반성하면 우리는 그것을 의(義)라고 부른다. 맹자는 울고 그른 것을 가리는 걸 지(知)라고 불렀다. 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운 걸 아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 남의 것을 빼앗는 일, 거짓말하여 이익을 취하는 일, 그 일을 반성하는 게 의(義)다.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함성호·시인〉

| 발언대 |



하정훈 건축사
대관하정훈 건축사사무소
(경상남도건축사회)

“요즘 좀 어때?” “건축 상담 건수도 잘 없네요...” 최근 주변의 건축사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된다. 필자의 길지 않은 경력 때문에 사무소 운영이 쉽지 않은가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설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 나가다보면 다양한 업역으로 밥벌이를 넓혀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부터, 건축물 해체, 건축물 관리·점검, 석면 해체, 감정 업무, 강의, 강연 등으로 건축사의 업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혹은 정말 다른 분야로 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듣게 된다.

경기약화로 건축설계 건수 역시 줄어들었기에 설계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눈을 돌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

지만, 설계대가보다 낮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해진다. 건축사의 주 업무는 누가 뭐라해도 설계가 아닌가? 그런데 설계보다 다른 업무의 대가가 더 낮다고 하니...

건축사가 설계를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사와 사무소의 이름이 남겨진다. 처음에는 기분 좋고 뿌듯했다. 그렇지만 필자의 이름이 남겨지는 일이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기쁜 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필자의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나니 건축사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요즘 협회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간분야의 설계대가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민간분

야의 설계 품질도 덩달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기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이다.

‘민간 설계의 품질 향상’ 바라건데 인허가를 위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업한 설계 도면으로 건물을 지어도 건축물의 품질이 보장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되길 희망한다. 필자 역시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이해·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공을 쌓아 “하정훈 건축사가 설계했습니다.” 이 말 하나로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축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는 그렇게 건축설계, 건축도면으로 밥 벌며 먹고 살고 싶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계 대가 기준 일원화, 설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포토 에세이

판공초 호숫가의 검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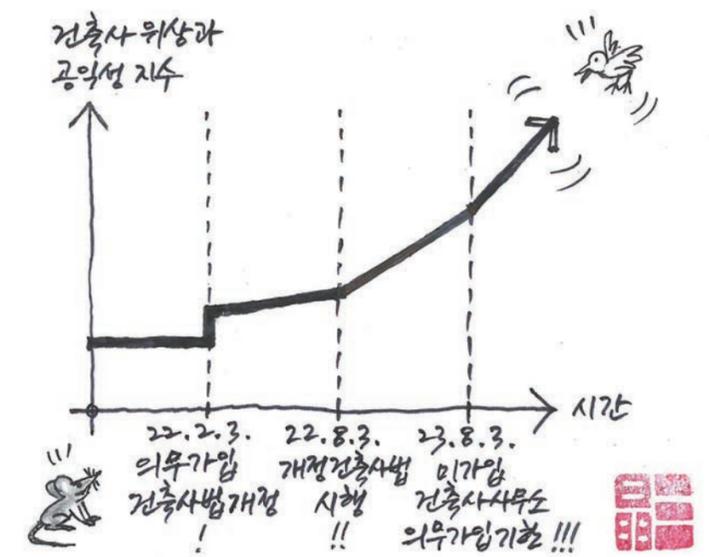


판공초 호수 풍경에 반해서, 한번 다녀온 적 있는 인도에 다시 발을 디뎠다. 한여름인데도 빙하가 쌓인 산을 배경으로, 호수는 그윽하게 흘러간다. 광활하고 푸르른 수면 위에 흰구름의 반영이 수채화처럼 맑아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때 앵글 속으로 들어온 검은 소 한 마리,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몸짓이다. 고개를 숙이고 환영의 인사를 하는 듯하다. 웬지 모르게 반갑다.

정병협 건축사 · 나은 건축사사무소

|| 건축만평 ||

강정삼 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



2023년 8월 4일, 건축사 의무가입시대 개막!

15,2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6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도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